

## 유지혈액투석과 복막투석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비교 및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원민 · 김정규 · 구훈섭 · 윤연주 · 임동미 · 윤성로 · 송현용

**배 경** : 신대체요법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대뇌기능의 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투석환자에게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기능 장애 중 기억력의 저하는 환자들의 사회참여 및 삶의 의욕을 상실시켜 투석환자들의 삶은 황폐해진다. 이에 저자들은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중인 환자에서 인지기능의 비교 및 위험인자를 알아보고, 혈액투석군과 복막투석군간의 인지기능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4년 4월 현재 본원 신장내과에서 최소 2개월 이상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중인 환자 중 뇌혈관질환의 병력이 없는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척도로 Mini-Mental State Exam (MMSE)를 측정하였고, K-CVLT (Korean-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로 인지기능 중 기억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기저 질환의 병력, 투석 방법, 투석의 적절도 (KT/V, sCCr), 헤모글로빈, 투석 기간 및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serum albumin, BUN, creatinine, normalized protein catabolic rate (nPCR), serum total cholesterol, body mass index (BMI)를 조사하였다.

**결 과** :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8 \pm 13.3$  (남 27, 여 45)이었으며, 혈액투석이 47명, 복막투석이 25명이었다. MMSE 점수는  $26.4 \pm 3.5$ 로 나타났고, 23점 이하를 인지기능의 장애로 평가할 때, 17.3%에서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CVLT 결과를 T점수로 환산하여 보면 35.7%에서 기억력의 저하가 있었고, 혈액투석군과 복막투석군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나이에 따른 인지기능과 기억력의 저하가 나타났고, 교육 수준이나 투석의 적절도, 영양상태, 빈혈의 유무, 당뇨병의 유무, 심장혈관질환의 유무, 투석기간 등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 : 투석환자들에 있어서 인지기능의 장애는 17.3%에서 있었고, 기억력의 장애는 35.7%로 좀 더 많이 나타났다. 빈혈이나 투석의 적절도 및 투석의 방법 (혈액투석과 복막투석과의 관계), 당뇨병의 유무에 대해서는 위험인자와 관련이 없었고,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 고령의 투석환자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